

# 닫힌 세상의 그림자

Dark clouds over a closed world



결인에게 망토를 주는 성 프란치스코  
지오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6-1337)  
프레스코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이탈리아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같은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FT 32)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거짓 안전이 “공동협력에는 무력하다”(FT 7)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번 십자가의 길 각 처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에 대한 묵상글을 첨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단힌 세상의 그림자”라는 회칙 1장에서 “보편적 형제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대 세계의 몇 가지 경향”(FT 9)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께서는 저희의 친구요 형제로 오셨으며, 심지어 저희를 위해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다. 저희를 지켜주시어 일상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기꺼이 행동하게 하소서.

##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 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하고 물으니, 수석 사제들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요한 19, 14-16).

### 설명

나자렛 사람 예수는 온갖 혐오와 종교적 광신주의에 빠진 정치·종교적 이해갈등으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또한 그를 끌고 다니며,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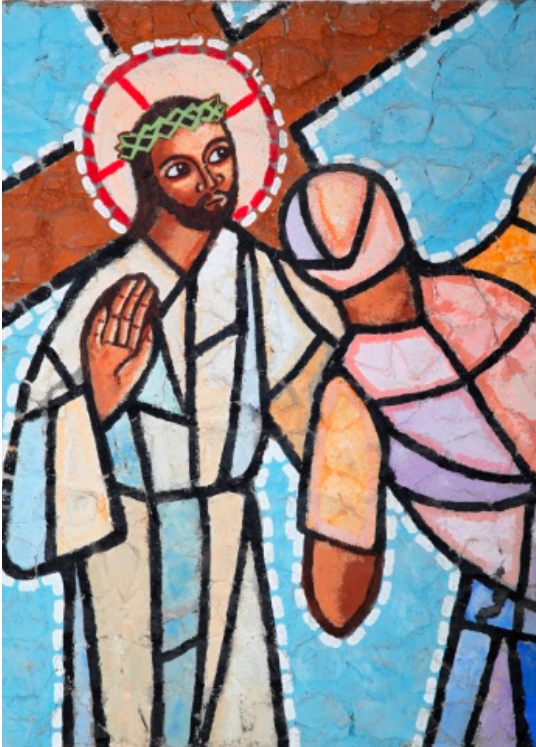
“다른 이들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맹목적 열광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인 또한 “인터넷과 여러 디지털 소통 공간을 통하여 언어폭력의 관계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매체 안에서도, 도를 지나친 비방과 폭언이 난무하며 모든 도덕 기준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FT 46).

### 기도

예수님,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고 혐오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적 경향에 대하여 저희의 관심과 경계심을 일깨워주소서.



##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지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말로 골고타라고 한다”(요한 19,17).

### 설명

예수님, 당신께서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린 채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소외되고 배제된 모든 사람들의 짐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 묵상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인류의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식료품부터 시작하여 온갖 낭비의 형태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지탄받아 마땅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FT 18)...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대상이 되고는 합니다”(FT 19).

### 기도

예수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특히, 착취와 배제 그리고 소외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높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말씀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이사 53,4).

#### 설명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거운 십자가에 쓰러져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인 오늘을 살아가는 노예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무게입니다.

#### 묵상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노예살이는 인간을 물건처럼 다룰 여지가 있는 인간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힘이나 속임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억압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목적인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 도를 넘는 일탈 행위는 여성들을 예속하고 그들에게 낙태를 강요합니다. 극악무도한 행동이 장기 매매를 위한 불법 인신 감금으로 이어집니다. 인신매매와 또 다른 형태의 노예살이는 인류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계적 문제입니다: 범죄조직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제적 연계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을 극복하려면 사회 각계 인사들의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FT 24).

#### 기도

예수님, 인신매매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살펴주시고 힘을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그러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말씀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

### 설명

여성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많은 여성들이 치유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나섰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위험에 처했으며; 그와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성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 묵상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 세계 사회 구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는 표현되지만, 결정과 현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흔히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기에 이중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FT 23).

### 기도

주 예수님,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당신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여성들이 배척과 학대를 당하고,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면서 성모님과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 제5차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루카 23,26).

### 설명

키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도왔습니다. 시몬의 행동은 우리들 모두가 이주로 인한 원인과 결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도전이며 강력한 요청입니다.

### 묵상

“이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아무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결정과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가치와 중요성과 인간성을 덜 갖춘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특정 정치적 선호가 우리 신앙의 깊은 확신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출신, 인종, 종교와는 무관한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 그리고 최고의 법인 형제적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신입니다”(FT 39). “이민들은 전 세계 미래를 이루는 근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주민들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형제적 책임 의식의 상실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FT 40). “문제는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가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릴 때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과 그러한 역량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FT 41).

### 기도

주님,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시며, 이주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키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이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증진하여 그들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말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이사 53,3).

### 설명

베로니카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직접 뵈옵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사려 깊고 친절합니다.

### 묵상

“우리는 가상 현실의 죄수가 되어 현실의 맛과 풍미를 잃었습니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 불어온 고통, 불확실성, 두려움, 자기 한계의 인식은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 조직,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호소를 되울려 퍼지게 만듭니다”(FT 33). “디지털 매체는 진정한 대인 관계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을 중독과 고립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잃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몸짓, 얼굴 표정, 침묵, 몸짓 언어가 필요하며, 심지어 체취, 손의 떨림, 흥조, 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관계는 ... 정작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본모습을 감추고 혐오와 약자에 대한 멸시로 표현되는 개인주의를 확대시킵니다.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리를 놓기에 부족하며, 인류를 일치시킬 수도 없습니다”(FT 43).

### 기도

오 예수님, 베로니카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당신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연민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병들고, 고립되고, 아프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말씀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이사 53,7).

### 설명

인권이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은 자주 간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권에 의지할 수 없었으며,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굴욕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 묵상

“실제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따금 증명됩니다. 인권 존중은 한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기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받을 때에, 창의성과 진취성도 꽃을 피우고 인간의 개성으로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환원주의적 인간학 전망들은 물론, 거리낌 없이 착취와 유기와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윤에 기초한 경제 모형이 조장하는 무수한 형태의 불의가 현대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기 존엄을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하거나 짓밟히면서 그 기본권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권리의 평등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FT 22).

### 기도

오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겪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인 단체들을 통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루카 23,27-29).

### 설명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만남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관심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 묵상

“현대 세계에서는 한 인류라는 소속감이 약화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건설하려는 꿈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향으로 여겨집니다.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깊은 환멸에서 비롯되는데, 그 환멸은 우리가 전능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은 환상의 기만 뒤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되찾고 새신을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새신의 길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립의 문화가 아닙니다. 만남의 문화입니다”(FT 30).

### 기도

오 예수님,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친절, 연민과 공감의 불꽃이 계속 불타오르게 하소서.



##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요한 12, 25-26).

### 설명

예수님께서서는 시로 페니키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당시 낙인찍힌 죄인들을 만나면서, 벽을 세우는 장벽의 문화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문화적이고 민족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양극화와 갈라진 상황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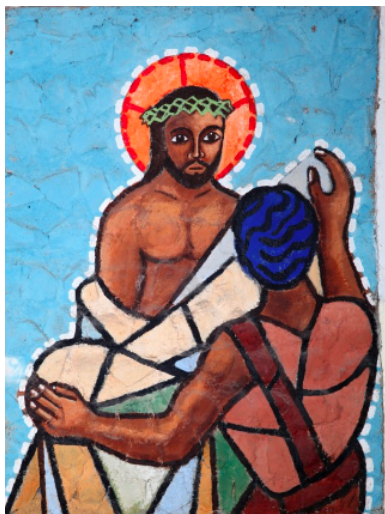
### 묵상

“자기 방어의 새로운 장벽이 생겨서,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의’ 세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그저 ‘그들’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장벽의 문화를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 곧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막고자 마음속에도 땅 위에도 벽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재등장합니다. 벽을 높이 쌓는 사람들은 아무 지평도 없이 자신이 세운 바로 그 벽 안에 갇힌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타자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FT 27).

### 기도

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정치·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인간을 갈라놓으려는 수많은 장벽들을 허물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형제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친교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요한 19,23-24).

### 설명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가난한 사람처럼 완전히 벌거벗게 됩니다. 그가 지녔던 존경, 존엄, 품위와 정신 등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져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품위를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습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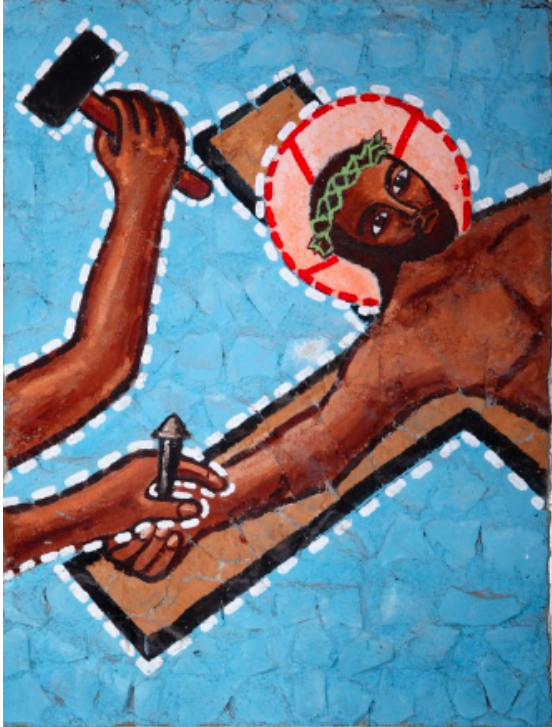
### 묵상

“일부 경제 강대국들이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문화적 모델로 제시됩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그러는 대신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에서 출발하여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FT 51). “자존감의 파괴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을 균일화하려는 경향 뒤에서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는 권력의 이익이 자라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매체와 관계망을 통하여 가장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려 획책합니다”(FT 52). “다음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뿌리가 없다는 느낌,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보다 더 나쁜 소외의 형태는 없습니다”(FT 53).

### 기도

오 주님, 인류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민족,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획일적인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루카 23, 33-34).

### 설명

예수님께서서는 온갖 폭력으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소리치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나무에 못이 박혀 꿰뚫렸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청했습니다.

### 묵상

“전쟁, 테러, 인종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많은 침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으로서 특정 이해관계에 적합한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폭력적 상황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너무 흔히 벌어져서 이른바 산발적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양상을 보입니다”(FT 25).

### 기도

주 예수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당신의 팔이 우리를 환대하고 용서를 베풀기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게 하시며,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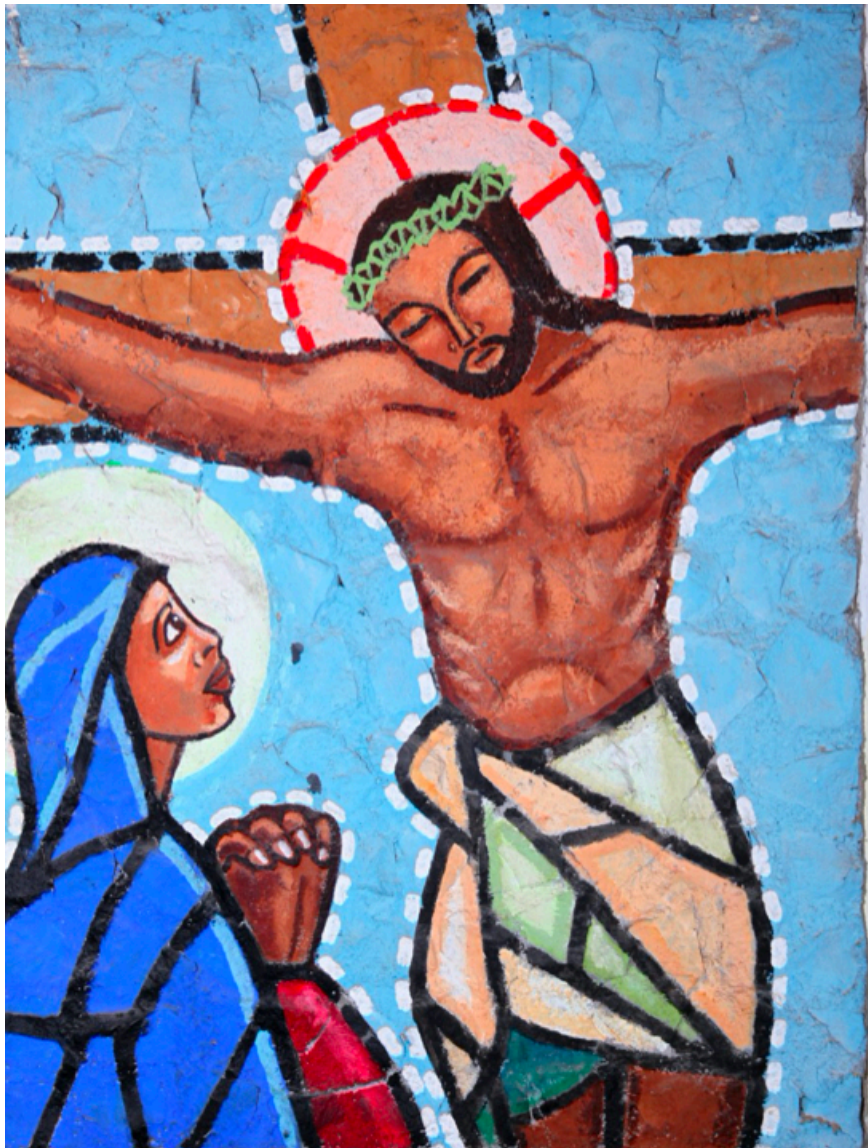


##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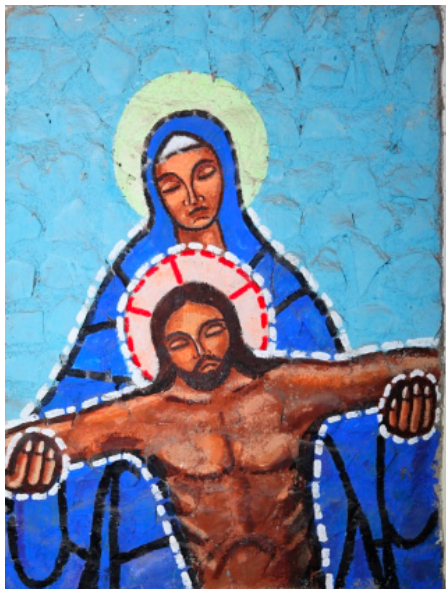
### 말씀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루카 23, 44-46).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합니다.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말씀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루카 23, 49-53).

### 설명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몇몇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 묵상

“최근의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응답한 수많은 길동무들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 역사의 결정적 사건들을 용감하게 써내려온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엮여 있고 그들을 통하여 지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 상점 종업원, 환경미화원, 요양사, 운송 종사자, 기본 서비스 제공자와 보안 요원, 자원봉사자, 사제와 수도자 등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FT 54).

### 기도

“마리아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보편적 모성을 받아들이시어(요한 19,26 참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묵시 12,17)에게도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버려진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정의와 평화가 빛날 것입니다”(FT 278).

## 제14차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말씀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마태 27, 59-60).

### 설명

예수님께서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예수님 스스로 땅에 뿌려진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묵상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 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FT 55).





##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ions of the Cross:

The texts of reflexion are drawn from  
the Encyclical letter FRATELLI TUTTI, published in October  
2020.

The Bible Translation is from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Catholic Edition.

The artistic representations of the Stations of the Cross are in the  
Parish of Kasamba, diocese of Mansa in Zambia  
and were made by  
Father Pierre du Suau de la Croix, M.Afr (2019).

The photographs were taken by Hans Schering, M.Afr, Munich.

The Way of the Cross prayer was prepared by the  
JPIC-ED Coordination of the Missionaries of Africa.

Rome, 29 January 2021

한국어 번역 및 편집: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JPIC



